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58 호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AI

AI

앤스로픽, 유급 연구 프로그램 레지던시 지원 접수

앤스로픽이 교수·창업자·스태프급 엔지니어를 AI 안전 연구로 데려오는 유급 기간제 프로그램 레지던시의 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머신러닝 경력은 요구하지 않고 연봉 환산 35만~50만 달러를 준다.



AI · 앤스로픽, 유급 연구 프로그램 레지던시 지원 접수

앤스로픽이 11월 2일 기술 분야의 기성 리더를 AI 안전 연구로 데려오는 유급 기간제 연구 프로그램 앤스로픽 레지던시의 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정량 분야 교수, 기술 창업자, 스태프급 엔지니어이고, 기간은 6주와 3개월, 6개월 가운데 고른다. 앤스로픽은 정렬과학 블로그 발표문에서 "머신러닝 배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 접수는 2026년 11월 22일 마감되며 미국과 영국 공고로 나눠 받는다.

보상은 연봉 환산 35만~50만 달러다. 앤스로픽은 이 금액을 경력 수준을 반영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레지던트는 프런티어 모델로 연구하고 프로젝트마다 전용 컴퓨팅 예산을 받는다. 근무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선호하지만 짧은 과정은 원격 참여도 가능하다. 회사는 앤스로픽의 정규 연구직 대부분이 샌프란시스코 이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앤스로픽은 이번 회차를 여는 이유로 분야의 나이를 들었다. 발표문은 "머신러닝은 젊은 분야"라며 앤스로픽 연구자를 포함한 오늘날의 시니어 연구자 상당수가 물리학자, 수학자, 신경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출발했다고 적었다. 회사는 모델 능력이 오를수록 AI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연구 의제를 짜고 무엇이 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되고 있으며, 정량 분야의 시니어는 이미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연구 영역은 세 갈래다. AI 안전과 정렬 분야에서는 확장 가능한 감독, 적대적 강건성과 AI 통제, 미정렬 모델 유기체, 해석 가능성, 세이프가드 연구, AI 웰페어를 꼽았다. AI 보안과 프런티어 레드팀 분야는 사이버보안, 로보틱스, 암호학에서 모델의 능력을 끝까지 시험한다. 머신러닝 시스템 분야는 모델 구조와 옵티마이저, 훈련 데이터부터 가속기 시뮬레이터와 강화학습 환경 파이프라인까지 다룬다. 발표문이 대표 연구로 든 펠로 성과에는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서 460만 달러어치 취약점을 찾아낸 연구가 있다. 메탈은 앤스로픽이 창발적 미정렬 레드팀을 자동화한 연구를 보도한 바 있으며, 레지던트가 들어갈 자리가 이런 실험의 현장이다.

메시지 설계로 보면 이 공고는 문턱을 지우는 데 공을 들였다. 앤스로픽은 지원자 조건에 "박사 학위, 머신러닝 경험, 논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고, 대신 야심 찬 기술 작업을 이끈 경험과 빠른 구현, 명확한 소통을 요구했다. 보상 범위를 숫자로 공개해 이직 비용을 따지는 시니어에게 판단 근거를 줬다. 메탈이 확인한 X 게시물은 공개 15시간 만에 조회수 781만 회를 넘겼고, 북마크가 4만 건으로 좋아요 2만 7,700건보다 많았다. 읽고 지나가기보다 저장해 두는 공고였다는 뜻이다.

레지던시는 연구 인력을 머신러닝 바깥에서 빌려 오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앤스로픽은 기술 업계에서 덜 대표된 집단의 지원을 특히 권하고, 지원자를 펠로 프로그램 후보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에서 연구 감각을 쌓은 사람이 6주에서 6개월 사이에 AI 안전 연구자로 옮겨 갈 수 있는지가 이번 실험의 성패를 가른다.

랜치에 대한 푸시도 서로를 기다렸다. 판도는 브랜치마다 따로 갱신을 조율하고, 같은 브랜치에 동시에 푸시할 때만 충돌로 본다. 들어온 팩파일은 블롭 스토리지에 바뀌지 않는 덩어리로 저장하고, 브랜치가 움직일 때마다 새 끝 커밋과 그 팩, 의존하는 이전 버전을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기록한다. 오픈AI는 이를 인과적 일관성이라고 부르며, 사용자와 에이전트는 실제로 브랜치 하나의 갱신 순서에만 기댄다고 설명했다.

읽기 쪽 해법은 재사용이다. 일반 깃 서버는 페치 요청마다 그 클라이언트에 맞는 팩파일을 새로 만든다. 손님마다 주문서를 받아 도시락을 새로 싸는 식당과 같다. 판도는 푸시 때 받은 팩파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필요한 묶음을 골라 링크로 건넨다. 미리 싸 둔 도시락을 진열대에서 집어 주는 방식이라, 손님이 이미 가진 반찬이 조금 겹쳐도 주방은 거의 일하지 않는다.

이 링크 전달에는 깃 프로토콜에서 잘 쓰이지 않던 packfile-uri 기능을 썼다. 응답에는 빈 팩만 싣고, 실제 데이터는 지역별 캐시 서비스 익스프레스(Express)가 내려보낸다. 일관 해싱으로 요청을 나눠 캐시 적중률이 99%를 넘고, 일반 클라우드 가상머신만으로 클론과 페치가 10Gbps 회선을 가득 채웠다고 오픈AI는 밝혔다. 푸시 단계에서도 서버가 패를 덜 보여 준다. 세 사람은 기존 깃 서버를 "가진 패를 전부 보여 주는 포커 플레이어"에 빗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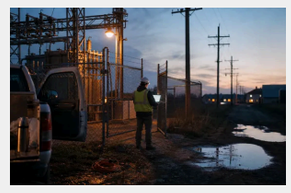
브랜치가 수백만 개면 서버가 알려 주는 브랜치 목록만 100MiB를 넘을 수 있다. 판도는 새 기능 브랜치를 푸시할 때 기본적으로 트렁크 브랜치 하나만 알려 준다. 그만큼 팩이 커질 수 있지만, 오픈AI 모노레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팩파일의 중간값은 20KiB 미만, 99번째 백분위도 3MiB

오늘 지면

1 AI 앤스로픽, 유급 연구 프로그램 레지던시 지원 접수
2 AI 오픈AI, 물리 엔지니어링 AI 연구 성과 공개
3 AI 오픈AI, Qodo Codex 코드 리뷰 사례 공개
4 AI 오픈AI, 일상 과제 벤치마크 LifeVal 공개
5 AI 오픈AI, 새 깃 백엔드 판도 공개
6 AI 오픈AI, 보안 스프린트·버그 바운티 상향 발표



PJM, 데이터센터 전력 백스톱 조달안 재제출



조너선 몽컨, AI 군집 공격 전력망 위험 경고

이 지면은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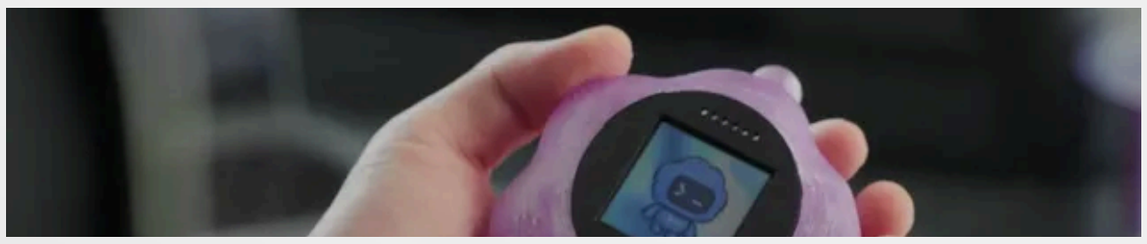
오픈AI, 일상 과제 벤치마크 LifeVal 공개

오픈AI가 11월 2일 육아, 행정, 가계 관리처럼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일을 AI가 얼마나 잘 해내는지 재는 일상 과제 벤치마크 LifeVal을 공개했다. 오픈AI는 발표문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개인 비서가 되려면 ChatGPT는 실제로 일을 끝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이 평가로 모델의 일상 과제 성능을 추적하고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메탈이 확인한 발표문의 도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

▶ 2면에 계속

AI

오픈AI, 물리 엔지니어링 AI 연구 성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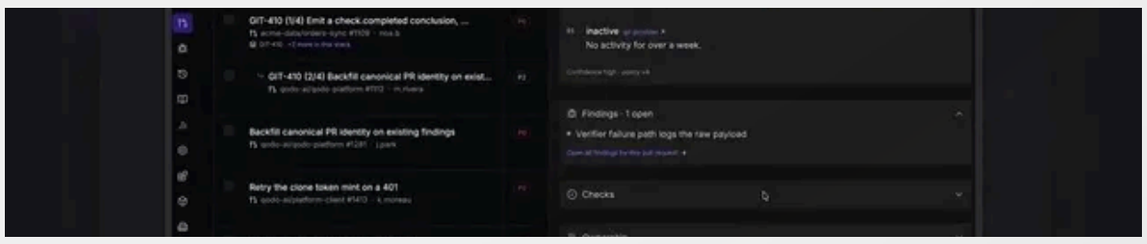
오픈AI가 11월 3일 자사 모델이 기계 설계와 전기 설계, 시뮬레이션 같은 물리 엔지니어링 업무를 얼마나 돕는지 정리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GPT-6 Astra는 사람이 설계를 직접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Codex와 대화하는 소형 기기의 외형과 회로기판, 소프트웨어를 설계했다. 오픈AI 하드웨어 팀의 모델 사용량은 2월 이후 토큰 기준 23배로 늘었고, 새 내부 모델은 설계 벤치마크 BenchCAD 2.0에서 평균 0.875를 기록해 GPT-6 Astra의 0.594를 앞섰다. 회사는 레이싱팀 칩 가나시 레이싱과의 협업을 넓히고 마쓰다와 새 연구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AI가 내건 목표는 엔지니어의 시간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물리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는 기계 설계와 전자 회로,

▶ 2면에 계속

AI

오픈AI, Qodo Codex 코드 리뷰 사례 공개



오픈AI가 11월 2일 코드 리뷰 스타트업 Qodo가 Codex 안에서 조직의 코딩 규칙과 저장소 맥락을 쓰도록 만든 플러그인 사례를 공개했다. Qodo는 코드 리뷰와 소프트웨어 품질 도구를 만드는 회사로, Codex 마켓플레이스에 플러그인을 올려 코딩 에이전트가 고치는 코드를 회사 전체의 지식 위에서 이해하도록 했다. 공동창업자인 이타마르 프리드먼 최고

경영자는 자사를 "코딩 에이전트의 단짝"이라고 불렀다. 오픈AI에 따르면 Qodo는 GPT-6 Astra를 포함한 오픈AI 모델로 엔지니어링 지식을 모으고 코드를 리뷰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을 감시한다.

이 플러그인이 겨냥한 문제는 규모다. 프리드먼은 고객사의 개발 환경이 1만 개가 넘는 저장소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물리 엔지니어링 AI 연구 성과 공개



1 오픈AI는 11월 3일 GPT-6 Astra가 Codex와 대화하는 소형 기기의 외형, 회로 기판, 펌웨어를 사람의 직접 수정 없이 설계했다고 공개했다.

2 오픈AI 하드웨어 팀의 모델 사용량은 2월 이후 토큰 기준 23배로 늘었고, 새 내부 모델은 BenchCAD 2.0에서 0.875로 GPT-6 Astra의 0.594를 앞섰다.

3 오픈AI는 칩 가나시 레이싱과의 협업을 넓히고 마쓰다와 공기역학·충돌 안전 설계 연구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험대는 기기 한 대였다. 오픈AI는 GPT-6로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한 뒤 외장 케이스와 인쇄회로기판(PCB), 소프트웨어 연동을 설계하게 했다. Astra는 오픈AI와 Work Louder의 최근 협업, 게임과 장난감 레퍼런스를 참고해 외형을 잡았고, 케이스와 부품을 붙잡는 내부 구조를 설계했다. 전기 부품을 고르고 케이스 안에 들어가도록 부품 배치와 연결을 짰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펌웨어, Codex 연결용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었다. 팀원 두 명이 본업 사이 부업으로 붙어 일주일이 안 돼 설계를 마쳤고, 위탁 생산업체가 한 달이 안 돼 소량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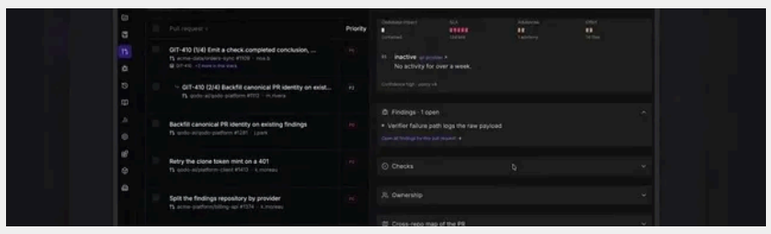
메탈이 확인한 81초 분량의 공개 영상에서 오픈AI 연구팀의 저스틴 린은 이 기기를 Codex 펫이라고 불렀다. 화면 속에 Codex가 살고 누르면 말을 걸 수 있는 버튼이 달린 기기다. 린은 노트북을 열어 Codex에 속삭이는 일이 싫었다며 "무언가에 말을 거는 게 정말 좋다. 살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맨 기판에서 조립된 PCB까지 가본 것이 처음이었던 그는 ChatGPT에 원하는 바와 계획을 건네자 기판이 설계됐고, 공장과 몇 차례 수정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영상 속 기기는 활성 에이전트가 있느냐는 물음에 다섯 개가 돌고 있다고 답한다. 발표문은 이 실험 사진에 TamaGPT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제품과 양산 준비는 다른 일이었다. 오픈AI에 따르면 제조 단계로 넘기기까지 여러 차례 검토와 반복이 필요했다. Astra가 제조사의 생산 제약과 공차, 조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빈틈이 다음 모델이 더 잘해야 할 지점을 찾는 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Qodo Codex 코드 리뷰 사례 공개



1 오픈AI는 11월 2일 코드 리뷰 스타트업 Qodo가 GPT-6 Astra 등 오픈AI 모델로 Codex용 리뷰 플러그인을 만든 사례를 공개했다.

2 플러그인은 Codebase Wisdom, Local review, PR Resolver 등 다섯 스킬로 코딩 전 규칙을 불러오고 풀 리퀘스트 전에 같은 세션에서 리뷰 결과를 돌려준다.

3 이타마르 프리드먼 최고경영자는 Decisions API로 200개 규칙 중 확인할 것을 먼저 추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작업 순서는 코딩 전과 후로 나뉜다. Codex가 코드를 쓰기 전에는 플러그인으로 관련 코딩 규칙과 풀 리퀘스트 이력, 반복된 패턴을 불러온다. 변경을 마치면 Qodo가 그 결과를 리뷰하고, 개발자가 풀 리퀘스트를 열기 전에 같은 세션 안에서 지적 사항을 Codex에 돌려준다. 메탈이 확인한 Qodo의 공식 소개 글에 따르면 플러그인은 다섯 가지 스킬로 묶여 있다. 저장소 간 의존성과 구조를 추적하는 Codebase Wisdom, 로컬 작업 트리를 검사하는 Local review, 풀 리퀘스트 리뷰 결과를 Codex로 가져와 고치는 PR Resolver, 리뷰 기준을 관리하는 Manage Review Standards, 과제에 맞는 조직 규칙을 꺼내는 Get Rules다.

로컬 리뷰의 범위는 넓게 잡혔다. Qodo는 커밋하지 않은 파일과 추적하지 않는 파일까지 포함해 작업 트리 전체를 보고, 전문 리뷰 에이전트들이 정확성, 보안, 요구사항 누락, 규칙 위반, 변경 범위 밖으로 번지는 영향을 따진다고 밝혔다. Codebase Wisdom은 회사의 Context Engine 위에서 돌아간다. PR Resolver는 지적 사항마다 원인을 추적해 고친 뒤 관련 테스트를 돌리고, 그 수정이 원래 지적을 해소했는지 Qodo가 다시 검증한다. 플러그인은 Codex 데스크톱 앱과 Codex CLI에서 쓸 수 있고, 함께 설치하는 Agentic Toolbox는 Node.js 20 이상이 필요하다. 설치에는 계정이 없어도 되지만 도구를 실행하려면 Qodo에 로그인해야 한다.

현장의 쓰임새는 Qodo 사람들의 말에서 드러난다. 이 회사의 AI 개발자 관계 책임자인 은네나 은두퀘는 개발자들이 GPT-6 모델을 쓰는 Codex로 기능을 만들고 기술 부채를 처리하면서 Codex의 코딩과 Qodo의 독립 리뷰 사이 인계를 자동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GPT-6가 매우 유능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은두퀘 자신은 GPT-6 Astra의 Extra High와 Ultra 추론 강도 설정을 자동화된 개발 흐름과 지식 업무에 쓴다. 매주 Codex가 그 주에 한 일과 다음에 집중할 지점을 보고하도록 예약해 두었고, 자기 코드 변경을 분석해 새로 만들거나 다듬을 에이전트 스킬을 제안받는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일상 과제 벤치마크 LifeVal 공개



1 오픈AI는 11월 2일 시간사용조사와 3,995명 설문을 바탕으로 만든 일상 과제 벤치마크 LifeVal을 공개했다.

2 평균 점수는 GPT-5.2 49.3%에서 GPT-5.4 73.0%, GPT-5.6 80.0%를 거쳐 GPT-6 Astra 80.6%로 올랐다.

3 유치원 고르기 93.1%, 조건에 맞는 집 찾기 100%, 당뇨 부모 식단 90.4% 등 사례별 점수도 나왔지만 과제 목록과 채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추린 영역은 돌봄, 건강, 교육, 가사 행정, 개인 재무, 쇼핑, 공공서비스 이용 일곱 갈래다. 오픈AI는 X 게시물에서 "AGI가 인류 전체에 이로우려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 과제를 도와야 한다"고 적었다. 1분 길이 영상을 붙인 이 게시물은 공개 15시간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넘겼다. 회사는 ChatGPT를 매주 쓰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어린이집 찾기와 예산 짜기, 장보기, 운동 계획까지 생활의 실무를 돕는 AI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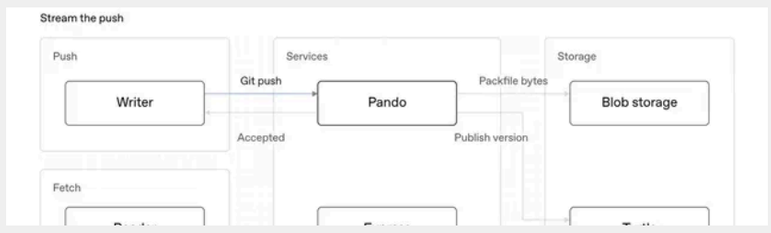
발표문은 현재 모델이 실제 생활 과제에서 받은 점수 다섯 개를 공개했다. 이사 뒤 새 집 근처 유치원을 비교해 입학 후보를 추리는 과제는 93.1%, 홍수에 대비해 이웃 네 집의 침수 방지 작업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조직하는 과제는 98.0%였다. 루저른 카운티에서 예산과 별채, 통근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양도세까지 계산하는 과제는 100%를 받았다. 멀리 사는 할머니와 경기를 함께 보는 환경을 마련하는 과제는 96.3%, 당뇨 진단을 막 받은 부모의 첫 주 식단과 돌봄 계획을 짜는 과제는 90.4%였다.

모델 세대별 기록은 가파른 상승 뒤 완만해지는 곡선을 그린다. 도표에서 GPT-5.4는 73.0%, GPT-5.5는 77.4%, GPT-5.6은 80.0%를 받았다. 49.3%에서 73.0%로 뛴 첫 구간 이후 세 모델이 더한 점수는 7.6%포인트다. 점수는 과제별 가중치를 두지 않은 평균 보상이다. 오픈AI는 속도, 생성 토큰 수, API 비용을 함께 비교한 도표도 냈는데, GPT-6이 이 과제들에서 GPT-5.6보다 약 23% 빠르다고 밝혔다.

AI

오픈AI, 새 깃 백엔드 판도 공개

오픈AI가 코덱스 이후 급증한 푸시와 페치를 감당하려고 모노레포의 깃 서버를 판도로 갈아끼웠다. 중간값 푸시 지연은 80% 가까이 줄었고 하루 1페타바이트에 가까운 깃 데이터를 내보낸다.



1 오픈AI가 11월 2일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 사내 모노레포의 새 깃 백엔드 판도를 공개했고, 판도는 이제 모노레포의 모든 개발을 처리한다.

2 판도는 브랜치마다 갱신을 따로 조율하고 푸시 때 받은 팩파일을 재사용해, 중간값 푸시 지연을 80% 가까이 줄이고 하루 1페타바이트에 가까운 데이터를 내보낸다.

3 코덱스로 착수부터 프로덕션까지 10주 만에 지었고, 전환 뒤 병합 후 신뢰도는 99.99%로 표시됐다.

오픈AI가 사내 모노레포를 떠받치는 새 깃 백엔드 판도(Pando)를 11월 2일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 공개했다. 판도는 이제 오픈AI 모노레포의 모든 개발을 처리하며, 중간값 기준 푸시 지연을 80% 가까이 줄였고 하루 1페타바이트에 가까운 깃 데이터를 내보낸다. 엔지니어와 에이전트가 쓰던 깃 명령과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두고 서버 쪽만 갈아끼운 것이 핵심이다. 오픈AI 개발자 계정은 11월 3일 X에서 "에이전트 사용량에 맞춰 깃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출발점은 코덱스가 바꾼 일하는 방식이다. 에런 프리엘, 테일러 블라우, 테드 나이먼 오픈AI 기술 스태프는 글에서 "코덱스가 오픈AI의 개발 규모와 속도를 바꿨고, 엔지니어가 훨씬 많은 일을 병렬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엔지니어 한 명이 여러 변경을 동시에 CI에 올리고, 푸시 한 번이 같은 커밋을 받아 가는 작업 여러 개를 깨운다. 오픈AI가 공개한 도표에 따르면 마스터 브랜치에 들어간 커밋 수는 2024년 1분기 대비 2026년 3분기에 1,378% 늘었고, 4분기 기본 추정치는 2,442% 증가다.

지난해 말부터 기존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다. 페치와 푸시가 느려지고 병합이 실패했으며, 신뢰도가 한때 90% 밑으로 떨어졌다. 세 사람은 "깃 자체의 한계에 닿은 것인지, 우리가 모노레포를 서비스하는 방식의 한계인지"를 물었다고 적었다. 오픈AI는 20년 넘게 쌓인 깃 생태계를 버리지 않고 백엔드만 다시 짓는 길을 골랐다. 그래야 클라이언트 개선이 오픈AI 밖에서도 쓸모 있다고 판단했다.

AI

오픈AI, 보안 스프린트·버그 바운티 상향 발표

오픈AI가 보안 회사 캐시드럴과 함께 자사 모델로 자사 방어를 공격하는 다음 보안 스프린트를 예고했다. 치명적 취약점 보상은 4배 넘게 올려 최대 17만 2,000달러를 준다.



1 오픈AI는 11월 2일 캐시드럴 연구자들이 오픈AI 모델로 회사 방어를 시험하는 다음 사내 보안 스프린트 계획을 발표했다.

2 버그 바운티의 치명적 등급 보상은 4배 넘게 오르고, 예외적인 발견에는 보너스 포함 최대 17만 2,000달러가 지급된다.

3 지난 스프린트에는 제품 엔지니어 25%, 250명 이상이 동원됐고 수정은 100% 코덱스 기반, 동적 검증 뒤 오탐률은 0.81%였다.

오픈AI가 11월 2일 다음 사내 보안 스프린트 계획과 버그 바운티 보상 상향을 발표했다. 보안 회사 캐시드럴의 연구자들이 오픈AI 모델을 써서 오픈AI 팀과 함께 회사의 방어를 직접 공격해 본다. 치명적 등급 취약점의 보상은 4배 넘게 올리고, 예외적인 발견에는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17만 2,000달러를 준다. 오픈AI는 X 게시물에서 "AI가 취약점을 찾는 능력이 커질수록 방어자는 공격자보다 먼저 AI를 일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시드럴은 외부의 눈으로 들어온다. 오픈AI는 캐시드럴이 차별화된 전문성과 접근법으로 약점을 찾고 플랫폼을 지키는 일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개빈 클라이거 캐시드럴 최고경영자 겸 공동창업자는 "오픈AI는 외부 보안 회사와 손잡고 자사 모델로 방어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회사가 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약점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정안을 시험하는 일까지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 스프린트의 시작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계획은 지난 스프린트의 연장선이다. 오픈AI는 발표문에서 지난번에 제품 엔지니어의 25%를 시스템 약점 찾기와 수정에 투입했고, 엔지니어들이 코덱스로 발견 사항을 조사하고 격리 환경에서 취약점을 재현한 뒤 검토용 패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메탈이 확인한 오픈AI의 디펜스 팩토리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회사는 당시 사내에 코드 레드를 선언하고 보안·응용·연구 조직을 묶어 250명 이상을 동원했으며, 100개가 넘는 서비스 영역을 훑었다. 오픈AI의 핵심 제품·플랫폼 총괄 티보는 "핵심 사업 운영을 제외한 모든 일보다 앞서는 전사적 노력"이라며 사고 대응과 같은 긴급함으로 방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후

PJM, 데이터센터 전력 백스톱 조달안 재제출

PJM이 FERC가 문제 삼은 비용 배분·담보·탈퇴 규칙을 고친 신뢰도 백스톱 조달안을 내고 2027년 3월 1일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단기 부하 예측 하향으로 조달 규모는 630MW까지 줄 수 있지만 2030년 11.5GW 부족 전망도 함께 나왔다.



1 PJM은 10월 29일 데이터센터발 용량 부족분 6,831MW를 메우는 신뢰도 백스톱 조달안을 수정해 FERC에 재제출했다.

2 수정안은 2026년 여름 최대 부하 대비 대형 부하 증가분에 비용을 배분하고 담보 요율을 낮췄으며, 입찰은 3월 28일 마감, 결과는 5월 10일 공개된다.

3 제프리스는 조달 규모가 약 630MW까지 줄 수 있다고 봤고, CRA는 2030년 약 11.5GW 부족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이 데이터센터 수요가 만든 발전 용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신뢰도 백스톱 조달안을 고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재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PJM은 10월 29일 수정안을 내면서 조달 절차를 2027년 3월 1일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보다 약 7개월 늦은 일정이다. 조달 목표는 2028/29년 용량 기본 경매에서 확보하지 못한 6,831MW 부족분이지만, PJM은 새 일정에 맞춰 최신 정보로 이 수치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했다.

재제출의 출발점은 규제 당국의 판단이다. 보도에 따르면 FERC는 9월 말 결정에서 첫 제안의 비용 배분, 송전 사업자 탈퇴 규칙, 부하 공급 사업자(LSE)의 담보 요건이 부당하고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바로 이 세 요소를 손봤다. PJM은 제출 서류에서 수정 내용이 FERC가 짚은 문제에 맞춰 "신중하게 재단됐다"며 백스톱 조달의 기본 구조와 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PJM은 이 조달과 함께 대형 부하와 발전 사업자 사이의 양자 계약을 병행하는 두 갈래 접근을 택했고, 양자 계약으로 확보한 용량만큼 조달 목표를 줄여 이중 조달을 막기로 했다.

일정은 촘촘하게 잡혔다. 배전 사업자들이 3월 입찰 창이 열리기 전에 새 대형 부하 물량을 보고하고, 입찰 창은 3월 28일 닫힌다. 최종 조달 목표와 공급 물량은 4월 28일 확정되고 결과는 5월 10일 공개된다. 조달 자원의 계약 기간은 최장 15년이다.